

봄

문학지마다 불교시로 여는 봄

佛香 읽고 마음엔 봄기운 가득

春

“...
대나무 대롱 끝에 입술을 대고
한모금 찬물을 삼키다가
울거나
매화꽃 봉오리 움트는 소리
겨울 산그늘 얼음꽃 깨지고
봄햇살 걸어오는 것
보았습니다
...”

나종영 시인이 순천 선암사에 가서
대나무대롱으로 흘러나오는 약수 한
모금 마시다가 문득 눈부신 봄햇살이
상큼살며시 걸어오는 것을 느끼고 쓴
시 '선암사 해우소' (<창작과 비평> 봄
호 발표)이다.

바람보다 새 울보다 햇볕보다 먼저
시인들이 흥성한 시로써 봄맞이에 나
섰다. 3월을 맞아 일제히 발간된 계

간·월간의 각 문학지에는 불교를 소
재로 한 시들이 대거 눈에 띈다. 불향
(佛香)이 잔잔히 배인 시들을 읽으며
봄을 맞으면 어떨까.

계간 <시와 함께> (통권2호)는 소설
가 박범신씨의 시 20편을 소개하는 특
집을 마련했다. 지난해 불교적 세계관
을 펼쳐놓은 소설 <흰소가 끄는 수레>
를 발간해 호평을 얻은 박범신씨의
“파가나니 들으며/눈덮인 해인사의 사
멸을 본다/ 대적광전의 죽은 부처들/
사멸은 슬프지 않으나/사멸이라는 말
은 뽕혀나온 머리칼보다 슬프다/...”
(‘파가나니 들으며’ 중)는 최근 작가가
천착하고 있는 생성과 사멸이라는 화
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이다.

<문학사상> 3월호(통권317호)는 침
묵속에서 진실을 깨내는 시인 오세영
씨의 시 5편을 묶어내고 있다. ‘은산

철벽’ ‘햇빛공양’ ‘백담사에 접거하며’
등은 지난 겨울동안 백담사에 머물며
응축해낸 내면의 소리들을 모아놓은
것. “까지 한마리/ 미루나무 높은/가
지끝에 앉아/.../은산철벽/어떻게 깨
리고 오를 것인가/ 문열어라 하늘아
/.../ 진실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
라 침묵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한층 깨
달은 시인의 내면의 모색이 잘 엿보인
다.

“보리아미타불/ 바로 연꽃이어라/
선각자들은 이미 깨달고 있었지/ 일만
번의 주검/ 그 문을 넘어서/ 일만번의
주검을 벗어났었지/... /그 누가/ 억겁
의 고통을 이기고/부처의 한 얼굴을
새기나.”

<시대문학> 신년호(통권13호)에 실
린 조예근씨의 ‘연꽃’ 시에서는 겨울
과도 같은 고통과 절망을 이겨낸 사람

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. <시대문학>
에는 이외에도 특집으로 ‘시인들의 서
라별 기행’ 연작시를 마련했다. 김의
식 내영자 정재희 오덕교 씨 등 17명
의 시인들이 천년고도 경주를 돌아보
고난 후의 감상을 2~3편의 시로 발표
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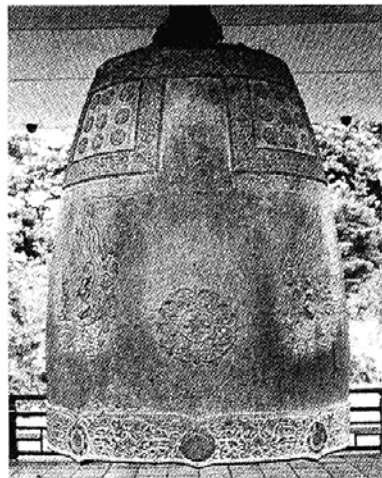
이중 김규은시인은 “계림의 알숙이
었으니/나를 업어주시던/ 아재같은 여
래여/ 아짐같은 보살이여/ 천인도 사
자도 목탑도/ 천연스러운 이웃/ 내가
지금 와도/스스럼없는 /수막새 한 조
각에 새겨진 미소/... /맑은 숨소리가
새 천년을 품으시네”라고 경주 남산
탑골 마애조상군을 읊었다. 천년 고도
가 지녀온 뜻이 새 천년으로 이어질
것을 염원하고 있다.

<문학과 의식> 봄호(통권43호)는 이
관목시인의 ‘갑사’, <시대문학>지는 이

상열시인의 ‘선운사 동백’, <시문학> 3
월호(통권 332호)에는 이성연시인의
‘도갑사’ 구종현시인의 ‘천불암’ 황상
순시인의 ‘오대산’ 등이, <시와 사상>
봄호(통권20호)는 이성연시인의 ‘불영
사길’, <심상>지는 이비오 시인의 ‘불
갑사 빛소리’, <문학과 창작> 3월호는
김여정시인의 시 ‘부석사’를 각각 실
었다. 모두들 산사에서 감흥을 잔잔
하면서도 함축적인 시어로 표현했다.

이밖에도 월간 <문학공간> (통권112
호)과 <한국시> (통권 118호)는 각각
심황성씨의 ‘각원사’ ‘개운사’ ‘대운
산’ 등과 나태현씨의 ‘선운사’ 소시집
을 집중 다뤘으며, <실천문학> (통권53
호)과 <한국문학> 봄호(통권237호)에
실린 불자시인 신경림씨와 장석남씨
의 원숙한 근작시도 눈길을 끈다.

이경숙 기자(gsllee@buddhania.com)



◇ 한국의 대표적 종 에밀레종(사진) 소리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했다.

에밀레종소리 어디서나 듣는다

송실대 사운드카드 제작 상품화

한국의 대표적 소리 에밀레종(성덕대왕신
종 국보 제29호). 그 장엄하고 신비한 소리를
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상시로 들을 수 있는 길
이 열렸다. 송실대 창업지원센터(소장 배명진)
가 에밀레종소리를 문화상품화해 내놓은 것.
종의 모형에 언제든지 삽입 가능한 하드웨어 음
원모듈을 개발, 기존 종 모형에서 나는 ‘땡,
땡’ 소리가 아니라 여음이 30초 가량 이어지는
에밀레종소리를 재현했다. 송실대와 벤처기업
이프컴테크가 함께 개발한 초소형 사운드카드
와 스피커를 내장, 에밀레종 특유의 저음과 소
리의 지속성을 구현했다. 모형은 범용제작전문
업체 범종사(대표 김철호)가 맡았다. 길이 25
cm 지름 15cm의 모형종을 때리거나 보탄을 누
르면 에밀레종의 깊고 장중한 소리를 들을 수
있다. 음향재생기(5000원)가 부착된 모형 종
가격은 4만원 정도. 4월중 출시된다.
배명진소장은 “에밀레종의 웅장한 소리를 관
공상품화해 외국사람들이 어디서나 한국의
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 것”이라며 “인터넷망을
통해 에밀레종에 관한 정보와 한국특유의 종
소리를 전세계인들에게 소개하겠다”고 말한다.

육군항공단 비승사 군법당 새 모델

비행접시 모양
외벽 황토처리
정운영씨 설계



◇ 외형은 비행접시 모습을 띄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불교교리를 함축하고 있는 호국비승사 군법당.

’99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기존의
군법당 모습이 아닌, 비행접시 모양
의 이색 군법당이 모습을 보일 예
정이다. 화제. 화제가 군법당은 31
일 준공법회를 갖는 육군항공단 호
국비승사(경기도 이천시 대포동
867-1). 비승사 법당은 기존의 군법
당과는 달리 원형의 외형에 황토흙
으로 외벽처리를 하는 등 독특한
형태로 건축돼 눈길을 끈다.



◇ 정운영씨

불자 건축가 정운영씨(예종종합
건축사사무소 대표)가 설계한 비승
사는 법당공간과 휴게실 등의 요사
채 공간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. 돌
이면서도 결국 하나인 셈이다. 군법
당이기에 통일의 개념을 최대한 응
용해 낸 것이다. 또 하나의 특징은
법당 건물 어디에도 창이 없다는
것. 설계를 한 정운영씨는 “종교의
식 공간으로서의 집중력과 장엄미
를 살리기 위해서”라 설명했다.
그러나 천정에 직경 3m짜리 유리
지붕과 외벽 아래위로 12개의 환기
구멍이 있어 법당은 언제나 신선하
게 호흡한다. 그 호흡의 들숨과 날
숨은 12구멍이 연휴해 내는 12연기
를 상징하고 있다. 전체적으로 원형
을 응용한 법당의 외형은 원이 갖

는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모
두 8개인 기둥은 8정도를 각각 외
미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산과
들, 초가지붕을 연상케 한다.
와이어관넬을 이용한 군법당 비
승사는 항공단의 이미지를 살려 비
행접시의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 건
물의 곳곳에 스민 교리적 의미가
더 관심을 끈다.
“무엇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
것이 없습니다. 법당은 철저히 불교

정신을 담아야 하고 장벽들이 눈에
보이는 현상들을 통해 교리를 깨우
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도 했
습니다.”

건축문화의 해에 새로운 군법당
의 모델을 제시한 정씨는 “군법당
일수록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성스
러운 종교공간과 새로운 건축예술
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
고 생각. 예술적인 면에 역점을 두
었다”면서 “이 공간에서 젊은이들
이 불교를 바로 배워 훌륭한 사회
인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새로 신축되는 비승사는 전체 51
평 규모로 150여명이 함께 논의를
볼 수 있다.

임연태 기자
(ytlm@buddhania.com)

인천 가천박물관 문화재 14000점 지하실에 방치

연수구청 전시관 신축 불허

인천지역 유일의 민간박물관인 가천
박물관 소장 국보·보물급 문화재 등
1만4천여점이 전시공간을 찾지 못하고
있다.

김의뢰재단 산하 가천박물관은 인천
에 하나밖에 없는 국보인 초조본 유가
사지론(제276호)과 보물 향약제생집성
방(제1178호), 식물초초(제1227호) 등
13점을 소장하고 있다. 또 삼국시대에
서 구한말 사이의 고고학사적과 의료
기 2백50점, 국내잡지장간호 7천6백
여점 등도 보유하고 있다.

가천박물관은 이들 자료를 전시 보
관하기 위해 95년 인천 남동구에 위치
한 길병원 별관인 가천관 6층에 1백40
여평 규모의 임시전시관을 개관했으
나 소장자료의 20%만 전시할 수 있을
뿐 나머지는 가천관 지하실 등에 보관
하고 있다.

박물관 측은 96년초부터 재단 소유
의 연수구 옥련동 일대 1천2백여평 부
지에 건평 4백여평 규모의 건물 신축
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수구청 측
이 신축허가를 계속 불허해 신축이 어
려운 상태다.

박물관 관계자는 “박물관부지와 수
립상태가 비슷한 인근 속숙에는 이미
인천시립박물관과 상록재전기박물관이
 들어서 있고 공민 안에 박물관이 세워
진 예는 북한산·남한산성·속리산공
원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연수구청
측이 신축을 불허하는 이유가 이해할
수 없다”고 반박했다. 김지연 기자
(jygang@buddhania.com)

영월에 각종 박물관 들어선다

민화책·동굴·곤충

강원도 영월지역에 조선민화박물관
관, 책박물관, 동굴박물관, 곤충박물관
등 각종 박물관이 들어선다.
조선민화 수집가인 오승돈씨는 5억
원을 들여 이달 하순 하동면 와석리
속천 김삿갓계곡에 총면적 1만1천여㎡
규모의 조선민화박물관을 착공, 2000
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서울 종로에서 고서점을 운영하고
있는 박대현씨는 서면 광전리 여촌분
교에 총면적 7천여㎡ 규모의 책박물관
을 이달말 개관한다. 박씨는 여촌분
교 주변마을을 ‘책 마을’로 꾸민다는

계획 아래 책박물관과 함께 전문서점
개장도 구상하고 있다.

영월지역 일대 석회동굴을 답사해
온 동굴생태환경연구소와 동국대 동
굴탐험연구회도 이달말까지 하동면
에밀지구, 북면 학전·공기지구, 서
면 용구지구 석회동굴 가운데 1곳을
선정해 회귀석회동굴 표본과 관련자
료를 2천여점을 전시할 수 있는 동굴박
물관을 개장할 예정이다.

한편 영월군도 영월지역이 희귀곤충
의 보고라는 곤충연구소의 연구결과
에 따라 올해 안에 곤충박물관을 개
관, 세계곤충 1만5천여점을 전시할 계
획이다.

청청스님 氣·달마전

청청 고운암 스님(서울 대각사의 기(氣)
글씨와 달마 그림전이 19일부터 4월 1일까
지 광주시 롯데백화점 8층 롯데회관에서 열
린다. 이번 전시에서는 경명주사로 쓴 기
(氣) 글씨와 달마그림 등 총 80여점이 전시
된다. (062)520-1117

25일까지 꽃꽂이작품 접수

한국불교꽃꽂이회(회장 지연스님)는 오는
4월 22~23일 서울 로얄호텔 2층 에머럴드
룸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꽃꽂이전시
회 및 탄생불 이운과 육법공양식을 병행
함에 따라 전시회에 참여할 불자들의 꽃꽂
이 출품접수를 이달 25일까지 받고 있다.
작품주제는 △사대명절 △의식중심 △봉
축불단화 관불화 △경전을 중심으로 한 꽃
꽂이 등이다.

황토 흙벽돌 기계

건강,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의소식!!

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.

■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

- 생산량 1일 600~1,000장
- 누구나 사용가능
- 벽돌기본규격 : 30×14×14
-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

▶ 온라인구좌 (우체국) 400077-0037300 봉송항토마을

황토 관련 전문 회사
황토 마을 예매

- 황토 주택 토굴시공
- 토굴 현장 출장감독
- 황토집 짓기교육 3월 중순이후 연중 2-3회
-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

봉송항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
전화 : 0671)634-0223
팩스 : 0671)634-1237

제 48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

삼천 부처님이 계신 당 「감로사」에서는
해마다 봄이 오면 삼천배 참회기도를 제방 큰스님을
모시고 음력 2월 10일에 시작하여 삼천불 제일날인
음력 2월 14일에 회향합니다.

몸과 마음을 함께 조복받아 지금까지 지은
모든 죄업을 일시에 소멸하고 성불할 수 있는
좋은 인연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일시 불기 2543년 3월 27일~31일(음력 2월 10일~14일) 4박 5일

▶ 법문큰스님 : 지관, 인환, 정관, 성오, 각성, 금담, 흥선, 법희, 혜인, 성림, 세민, 혜충스님

▶ 인례사스님 : 보안, 능관, 변륜, 정평, 정봉, 경법, 경성, 경원, 경무, 경중, 정근, 중명, 화용, 탄준, 정찬, 정우스님

▶ 동 참 금 : 3만원(위배 한문 모시는데 5천원) * 회향날 발생합니다.

▶ 지 참 물 : 백미, 꽃 과일 약간씩(주부실 분은 담요 한 장)

▶ 연 락 처 : 051) 809-0926

대한불교 감로사 주지 혜충 합장
주 계 중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2동 33번지

황토 집 (토굴)

생명의 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- 황토!

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
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.

..... 황토토굴의 피라미드 호흡을
살아 숨쉬는

황토 토굴은 바로
자연의 숨결을 직접
느낄 수 있게 해주는
“생명의 물질”인 것입니다.

.....

● 황토 집 (토굴) 13평형 25평형 원하시는대로
「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초」
황토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,
「무료관리」를 약속드립니다.

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
주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-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
TEL: 0551)282-7629 FAX: 0551)283-6531
H.P: 017)582-7116 H.P: 017)566-9969